

JF에셋, 백광소재 지분 6.03%로 축소

홍콩 국적의 JF에셋매니지먼트는 6월2일 현재 석회 제조기업 백광소재의 지분 6.03%를 보유하고 있다고 6월7일 공시했다.

직전 보고일인 4월28일 당시 JF에셋의 지분율은 9.16%였다.

<화학저널 2005/06/08>